

社會指標로 본 家族變化와 政策課題

鄭京姬

본 연구는 1995년 개편된 韓國의 社會指標體系에서 제시된 家族部門의 43개 個別指標의 검토를 통하여 지난 20년간의 家族變化를 살펴보고 家族政策의 方向을 제시함으로써 社會指標의 社會報告的 機能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家族構成의 變化로는 가구 및 가족의 크기 감소, 총가구수의 급증, 가족의 해체 현상의 증가, 무핵가족 및 1세대 가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편, 家族形成에 있어서 결혼이 연기되고 자녀의 수 또한 대폭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家族生活의 경우,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생활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노인가구, 여성가구, 소년소녀가구의 증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양육에 비하여 부차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家族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여 健康한 家族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내의 의존적인 가족성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강화, 둘째, 결손가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가족복지 상담서비스 체계의 구축, 셋째, 주거관련 비용과 교육비의 저하를 통한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증진, 넷째, 가족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단위의 교육과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개발, 다섯째, 건전한 가족모델의 제시를 통한 가족윤리의 정립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토하여 주신 卞倬榮·李顯松 副研究委員에게 감사드립니다.

I. 序 論

1. 社會指標의 定義와 機能

社會指標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회가 처해있는 상태를 총괄적·집약적으로 나타내어 국민생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지표운동이 시작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지표에 관한 통일적으로 정의된 概念은 아직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제연구들은 사회적 가치와 목표가 설정되면 社會指標는 사회적 방향을 평가하고 사회적 관심영역에 있어서 행동의 준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¹⁾.

이러한 社會指標가 갖는 기능으로 랜드(Land)는 ① 사회정책적 기능(Social Policy Rationale) ② 사회변동적 기능(Social Change Rationale) 및 ③ 사회보고적 기능(Social Reporting Rationale)을 들고 있다. 랜드가 제시한 社會指標의 제기능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社會指標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즉 社會指標의 정책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사회 엔지니어링적 시각과 社會指標의 사회보고적 기능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나뉘어진다(Land, 1983:1~26). 사회적 안녕의 요소들이 확정되어야만 그것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시각은 서로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정책의 기반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가 또는 사회계몽적 성격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社會指標의 정의와 지향점이 달라진다. 정책분석적 접근을 강조하는 사회 엔지니어링적 입장을 갖게 되면 실행중인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규범적 복지지표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 반면, 사회보고라는 사회계몽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사회조건, 경향, 해석과 설명들에 관한 記述的인 指標들

1) 사회지표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조남훈 외(1995),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의 제1장 사회지표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참고할 것.

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社會報告의 機能을 강조하는 시각은 社會指標의 주요기능을 사회의 중요한 제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측정과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社會指標는 사회조건들과 그것들의 각 부분의 時系列的 變化를 나타내는 사회적 인덱스에 불과하다. 따라서 社會指標의 적절한 역할은 啓蒙이라고 본다. 즉, 사회적 조건과 사회변화에 관한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 일반적인 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社會指標의 主要 機能이라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도에 개정된 家族部門 지표체계의²⁾ 個別指標를 살펴봄으로써 社會指標의 社會報告의 機能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家族部門의 社會指標를 통하여 사회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인 家族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변화로 인하여 家族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개개인이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제 판단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家族部門 指標體系의 概要

이 글이 기초하고 있는 社會指標體系는 1995년도에 개편된 것으로 기존의 社會指標體系와는 달리 家族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었다. 즉, 기존의 사회지표체계에서는 家族이 사회부분의 하위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중요한 관심대상이 아니었으나, 개편된 체계에서는 13개 부문중 1개의 부문으로 독립되었다. 이는 家族이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과 家族의 變化가 가져오는 막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 1995년에 개편된 가족부문의 사회지표체계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구성기준은 조남훈 외(1995),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것.

개편된 家族部門은 가족생활의 포괄적인 이해와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客觀的인 家族의 現狀은 家族構造, 家族形成, 家族生活의 영역으로 主觀的인 規範的 關心은 家族問題와 家族規範 영역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이에 미래 지향적인 규범, 즉 家族의 重要性, 老人扶養의 問題, 夫婦關係 등에 관한 주관적 지표가 강조되어 기존의 5개에서 13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려에 의하여 家族部門은 家族構成, 家族形成, 家族生活, 家族問題, 家族規範 등의 5개 關心領域과 16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구성되었으며, 個別指標는 43개가 제시되었다³⁾.

3. 資料源⁴⁾

현재 『韓國의 社會指標』에는 통계청의 승인이 난 자료만이 수록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체계에서 제시된 個別指標들이 다 수록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현재 제시된 家族部門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새로이 제시된 개별지표의 경우는 최근 자료만 제시되고 있어 가족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시계열적인 비교를 통하여 家族變化를 파악하고 家族政策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個別指標를 계량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인 연구결과라도 제시하고 새로운 개별지표에 대해서는 시계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3) 가족부문의 구체적인 체계와 개편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조남훈 외(1995),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Ⅱ』의 제2장을 참고할 것.

4) 개별지표의 정의와 자료원은 조남훈 외(1995),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의 제6장 용어해설과 산식을 참고할 것.

II. 社會指標로 본 家族變化

1. 家族構成의 變化

家族이 적절한 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構造를 갖고 있는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 관심영역은 가구구성, 가족의 크기, 가족형태 등의 3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家族의 現況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家口構成의 경우 總家口數는 지난 20년간 약 2배 증가하여 1995년 현재 1296만 1천가구인 반면 平均 家口員數는 1975년의 5.1명에서 3.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출산력의 저하와 도시로의 이동에 의한 가구분할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권태환 외, 1995). 한편 가구의 형태별 분포를 보면 단독가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 현재 총가구의 12.7%이며 5인 이상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에 불과하다. 정의상 가족에 속하지 않는 單獨家口의 增加는 家族의 解體를 보여주는 한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동거하는 가족원수와 자녀의 수를 통하여 살펴 볼 때 가족의 크기 또한 지난 20년간 급속히 감소하여 1995년 현재 平均 出生兒數는 20년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1.8명이다.

또한 家族形態는 세대의 구분, 가족의 형태, 핵—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단위—의 수라는 3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것은 1세대 가족의 증가와 3세대 가족의 감소이다. 1975년에 7%에 불과하던 1세대 가족은 20년후인 1995년 현재 두 배가 넘는 15.1%로 급증하였다. 한편, 부부가 부모와 미혼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3세대 가족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21.1%에서 절반 수준인 11.6%로 감소하였다.

1세대 가족의 증가는 무자녀 가족의 증가 및 결혼후 첫 번째 자녀출산까지의 기간 확대, 노인부부의 증가, 형제들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권태환 외, 1995).

〈表 1〉 家口構成의 變化

「가구구성」영역의 개별지표	1975	1980	1985	1990	1995
가구 구성 ¹⁾					
총가구수(천가구)	6,648	7,969	9,571	11,355	12,961
평균 가구원수(명)	5.1	4.5	4.1	3.7	3.3
가구의 형태별 분포(%)					
단독가구	4.2	4.8	6.9	9.0	12.7
2인 가구	8.3	10.5	12.3	13.8	17.3
3인 가구	12.3	14.5	16.5	19.1	20.7
4인 가구	16.1	20.3	25.3	29.5	31.4
5인 가구 이상	59.0	49.8	39.0	28.6	17.9
가족 크기(명) ²⁾					
평균 동거 가족원수	5.2	4.8	4.4	4.0	3.6
평균 출생아수	3.5	3.0	2.3	2.2	1.8
가족 형태(%) ¹⁾					
가족의 세대수별 분포					
1세대 가족	7.0	9.0	10.5	12.0	15.1
2세대 가족	71.9	74.2	73.3	74.1	73.1
3세대 이상	21.1	18.4	16.3	13.9	11.6
가족의 형태별 분포					
핵가족	70.7	74.0	75.3	76.0	79.9
직계가족	11.4	11.2	10.7	10.2	10.7
기타가족형태	17.9	14.8	14.0	13.8	9.4
가족의 핵수별 분포					
0핵	6.8	9.1	11.6	13.4	16.7
1핵	84.2	83.0	81.8	82.3	81.2
2핵	8.8	7.7	6.4	4.3	2.1
3핵 이상	0.3	0.2	0.2	0.0	0.0

資料: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976, 1982, 1985, 1991, 1994.

이러한 경향은 家族의 核數別 分布에서도 보여진다. 핵이 전혀 없는 家族의 비율이 1995년 현재 16.7%이며 2핵 이상의 家族은 2.1%에 불과하다. 家族의 形態別 分布를 보면 핵가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0%에 달하고 있고 기타가족형태는 감소하여 9.4%에 머물고 있으며 직계가족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직계가족의 원리에 큰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발생한 출산력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즉, 자녀수가 적은 경우 한 자녀가 결혼시 부모를 모시고 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직계가족의 비율이 감소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상 8개의 개별지표를 통해 살펴본 家口構成의 變化는 가구 및 가족의 크기감소에 의한 총가구수의 급증, 단독가구의 급증 등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무핵가족의 증가 및 주로 노인부부의 증가에 기인하는 1세대 가족의 증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家族形成에 있어서의 變化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을 살펴보면 가족은 일생동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그 변화의 계기를 이루는 것이 결혼과 자녀의 출산, 배우자의 사망과 자신의 사망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족주기의 개념으로(Glick and Parke, 1965; WHO, 1976),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로 구성되며, 본 관심영역에서는 혼인, 자녀출산, 가족해체의 세부관심영역을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당사자에게는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형성의 출발점이 되며 지향가족(Family of Orientation)으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시기인 結婚의 경우 初婚年齡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5년 현재 남자는 29.3, 여자는 26.1세이다. 그러나 남녀간의 연령차이는 큰 변화가 없다.

粗婚姻率 또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현재 9.0이다. 한편 租再婚率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⁵⁾.

家族生活週期の 다음 단계인 子女出產의 경우 첫 자녀 출산연령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결과를 보면 결혼의 연기와 더불어 첫 자녀출산시기 또한 지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영역에서는 가족의 확대기가 끝나

5) 그러나 혼인유형의 변화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1995년도 인구동태자료에 의하면 전체 결혼중 초혼인 남성과 재혼여성과의 결혼이 10년 사이에 1.8%에서 2.6%로 증가한 반면, 초혼여성과 재혼남성간의 결혼은 3.8%에서 2.8%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부가 모두 재혼인 경우도 4.1%에서 4.9%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는 90.3%에서 89.7%로 감소하였다.

는 시점을 期待子女數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 안정화 되어 2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表 2〉 家族形成에 있어서의 變化

「가족형성」영역의 개별지표	1975	1980	1985	1990	1995
혼 인					
평균초혼연령					
(세) ¹⁾					
남자	27.4	27.3	27.8	28.6	29.3
여자	23.6	24.1	24.8	25.5	26.1
조혼인율(천명당) ²⁾	8.0	10.5	9.2	9.4	9.0
조재혼율(천명당) ²⁾	0.2	0.3	0.4	0.4	0.4
자녀출산 ³⁾					
기대자녀수(명)	3.5	-	2.2	2.2	2.1
가족해체 ²⁾					
조이혼율(천명당)	0.5	0.6	0.9	1.1	1.5
이혼 사유					
(%)					
부부불화	64.1	74.4	80.6	82.1	83.5
기타	35.9	25.6	19.4	17.6	16.5

註: 첫 자녀 출산연령이 개별지표로 제시되었으나 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6년에 조사한 가족생활주기조사 자료에 의하여 추계된 첫 자녀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1935~44년에 결혼한 부인(현재 72세)의 평균 첫 자녀출산연령은 20.2세, 1955~64년에 결혼 부인(현재 57세)의 평균 첫 자녀출산연령은 22.3세, 1975~85에 결혼한 부인(현재 39세)의 평균 첫 자녀출산연령은 23.8세로 젊은 연령층에서 첫 자녀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資料: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 _____,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976, 1982, 1991, 1994.

한편 家族의 解體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에 의하여 발생한다. 조 이혼율을 보면 지난 20년간 3배가 증가하여, 1995년도 현재 1.5이다. 이혼의 결혼기간별 분포를 보면 20년 이상의 결혼생활 후 이혼하는 비중이 1986년의 4.5%에서 1995년에는 9.1%로 급증하여 이혼이 전 결혼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혼의 증가는 부부간의 감정적인 유대

가 중요해지면서 부부간의 애정이 결혼유지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증대,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저하 등이 조이혼율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Giddens, 1993). 離婚事由의 變化를 보면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83.5%에 달하고 있다. 즉, 부부간의 관계가 결혼의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상 7개의 個別指標로 살펴본 家族形成에 있어서의 變化는 가족에 있어서의 자녀의 중요성의 감소와 부부관계의 중요성의 증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결혼과 자녀출산이 연기되고 있으며 자녀의 수 또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조이혼율이 급증하였고 이혼의 대부분이 부부불화로 인한 것이다.

3. 家族生活의 變化

家族이 개인생활의 중심이므로 가족생활의 조건이 개인의 삶의 질과 생활안정에 있어서 막대한 중요성을 갖는다. 본 부문에서의 家族生活은 거주환경, 경제적인 생활,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 문화생활의 4개 관심영역을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自家保有率은 199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총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도시 건설등 주택보급의 증대로 인하여 자가 보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거주주택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6.8%로 4가족중 1가족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전에는 대부분(91.9%)이 단독주택에서 생활하였음과 비교해 볼 때 급격한 변화이다. 더불어 가구당 주거공간도 증가하여 41.4m²에서 58.9m²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居住住宅의 變化는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소득분포에 관한 자료와 총 가계소비지출액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의 급격한 경제적 발전으로 인하여 절대액수만으로

는 家計의 變化를 精確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家口支出의 構成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생활을 살펴 볼 수 있다.

〈表 3〉 家族生活: 住居環境과 家口所得 및 支出에 있어서의 變化

「가족생활」영역의 개별지표		1975	1980	1985	1990	1995
주거 및 주택환경 ^{a)}						
거주주택의	단독주택	91.9	89.7	82.2	75.3	59.7
종류(%)	아파트	1.4	4.9	9.0	14.8	26.8
	기타	6.6	5.1	8.7	6.5	13.5
자가보유율(%)		63.6	58.7	53.7	49.9	53.3
가구당 주거 공간(m ²) ^{a)}		41.4	45.8	46.4	51.0	58.9
가구소득 및 지출 ^{b)}						
가구소득분포 (%) ¹⁾	40만원 미만	-	16.2 ²⁾	48.7	21.4	3.4
	40~60만원 미만	-	26.8	26.2	27.2	5.7
	60~80만원 미만	-	23.0	12.0	20.4	8.0
	80~100만원 미만	-	16.1	6.0	12.3	11.0
	100~200만원 미만	-	10.4	6.1	15.8	48.3
	200만원 이상	-	7.6	1.0	2.9	23.5
가구지출구조	월 가계비(천원) ¹⁾	56.9	174.0	302.2	650.0	1,230.6
	(%)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식물비	48.9	43.0	37.7	32.5	28.8
	(외식비)	(1.0)	(1.8)	(3.1)	(7.0)	(9.6)
	주거비	2.9	4.7	4.7	4.6	3.7
	광열수도비	6.3	7.5	7.4	4.5	4.1
	가구·가사비	4.5	4.5	4.9	5.8	4.8
	피복·신발비	9.2	9.9	7.8	8.4	7.9
	보건·의료비	4.5	6.5	5.4	5.3	4.8
	교육·교양비	8.5	7.8	10.3	11.9	14.4
	(교육비)	(6.2)	(5.5)	(6.4)	(7.2)	(9.1)
	교통통신비	4.7	5.8	6.5	8.4	11.6
기타 소비	10.4	10.4	15.2	18.6	20.0	

註: 1)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1980년의 경우는 각각, 9만원 미만, 9~17만원 미만, 17~25만원 미만, 25~35만원 미만, 35~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임.

資料: a)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b) _____,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總家計消費支出중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의 44.2%에서 1995년에는 28.8%로 급격히 감소하여 앵겔의 법칙—즉,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음식물비의 비중이 감소함—에 기초하여 볼 때 지난 20년간 가구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등 생활필수항목의 구성비가 감소하였다. 한편 외식, 교육·교양, 교통통신비 등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선진국형의 소비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보면 家計黑字率이 계속 증가하여 1995년 현재 29%이다. 즉, 도시근로자가구는 평균적으로 월 173만원의 가처분소득중 123만원을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0만 2천원은 저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 그러나 生活安定에 대한 主觀的인 評價는 오히려 악화되어 1990년보다 2.8% 감소한 16.9%가 생활수준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重要한 生活關心事는 현재까지는 사회통계조사의 조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1995년에 미디어 리서치가 공모처의 의뢰로 조사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관련 여론조사 보고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삶의 질 분야에 관하여 조사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관심이 많은 분야로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과반수였으며 ‘자녀문제’, ‘안락한 주거생활’, ‘수입증대’, ‘직장에서의 성공’, ‘본인의 노후대책’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연령이 높을수록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으며, 자녀문제는 40~50대 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한 노력이 이루어 지는데, 아직도 47%가 老後準備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1985년도의 65%에 비하여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절반 가량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6) 원래 제시된 지표는 가구당 저축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가용통계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평균개념인 가계후자율을 제시하였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1995년에 실시한 한국가구패널조사에 의하면 대상자는 평균 월 39만 7천원을 저축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액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 家族生活: 生活安定과 文化生活에서의 變化

『가족생활』영역의 개별지표		1975	1980	1985	1990	1995
생활안정(%)						
흑자율 ^{1)e)}		8.8	19.6	23.5	25.3	29.0
(총가처분소득: 천원)		(63.0)	(224.5)	(397.2)	(870.2)	(1,732.5)
생활안정에 대한 평가 ^{2)f)}		-	-	-	19.7	16.9
중요한 생활 관심사 ^{3)c)}	본인과 가족의 건강	-	-	-	-	52.9
	자녀문제(학업, 결혼 등)	-	-	-	-	12.0
	안락한 주거생활	-	-	-	-	11.3
	수익증대	-	-	-	-	10.0
	직장에서의 성공	-	-	-	-	6.3
	본인의 노후대책	-	-	-	-	5.3
	기타	-	-	-	-	2.2
노후준비방법 ^{f)}	보험	-	-	8.6	11.2	16.1
	예금·적금	-	-	9.4	10.4	17.8
	연금	-	-	11.5	13.4	16.0
	기타(계, 부동산 등)	-	-	5.7	4.0	3.2
	준비 없음	-	-	64.9	61.0	47.0
문화생활(%)						
가족 외식 빈도 ^{4)a)}	없다	-	-	-	-	17.4
	연 1~6회	-	-	-	-	39.6
	월 1회 정도	-	-	-	-	20.6
	월 2회 정도	-	-	-	-	14.3
	주 1~4회	-	-	-	-	8.2
가족 생활용품 현황 ^{5)b,d)}	컴퓨터	-	-	-	-	13.4
	비디오	-	-	-	27.8	59.4
	전축	-	-	-	36.7	48.3
	피아노	1.6	3.7	6.0	-	11.5
	자가용	-	-	4.0	-	26.5
	에어컨	-	1.1	1.9	3.2	5.3

註: 1) 원래 제시된 개별지표는 '가구당 저축비율 분포'이나 해당 자료가 없어 흑자율을 제시하였음.

2) 생활안정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3)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삶의 질의 분야에 대한 응답임.

4) 갤럽이 1994년도 조사한 자료중 유배우인 경우의 외식빈도를 정리한 것임.

5) 1990년도까지만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생활용품의 소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1995년도는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를 인용함.

資料: a)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조사보고서』, 1994.

b)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패널조사』, 1996.

c) 미디어 리서치,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1995.

d)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e) _____,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f) _____, 『사회통계조사』, 각년도.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家族의 支出構造에서도 외식비, 교육·교양비, 교통통신비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생활에서 여행, 놀이, 외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家族 單位의 餘暇活動 現況, 外食頻度 등이 家族의 文化生活의 現況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전국적인 자료가 없는 형편이다. 가족단위의 여가생활에 대한 통계자료 또한 전혀 없는데 이는 여가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는 개인을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앞으로 조사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또한 家族 外食에 관해서도 전국적인 자료가 없어 꺾림이 1994년도에 외식빈도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중 유배우인 사람들의 외식빈도를 제시하였는데 17.4%만이 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외식이 보편적인 가족 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외식빈도는 연 1~6회이다. 한편,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는 문화용품과 시설을 가정에 갖추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선 인공위성 수신장치, 케이블 TV, 자가용, 전축, 비디오, 피아노, 컴퓨터, 에어컨 등이 있다. 1985년만 해도 10%미만에 머물던 비디오와 전축이 이제는 보급률이 높아져 2가구중 1가구에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의 보급도 대폭 증대되어 4가구당 1가구는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 자가용의 보급은 가족단위의 여가와 여행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가족단위의 행사를 증가시켜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 12개의 개별지표로 살펴본 家族生活은 자가보유율이 크게 증진되지 않았으나 가구지출구조가 서구화되었고 흑자율 및 노후준비율이 증가되어 경제생활에 있어서 생활안정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가족의 문화생활 또한 증진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家族問題의 變化

이 관심영역은 家族問題의 일차적인 출발점이 되는 不安定家口의 實態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불안정가구에는 노인가구, 미성년자가구, 편부모 및 부모 외의 친족과 미성년자가 같이 사는 가구, 여성가구주 등이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 총가구중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985년의 2.7에서 1995년 현재 5.8이다. 또한, 노인중 노인가구에 사는 노인들의 비율을 통하여 좀더 자세히 노인들의 가족생활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노인중 42.3%가 노인단독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결과이다.

〈表 5〉 家族問題의 變化

(단위: %)

「가족문제」영역의 개별지표	1975	1980	1985	1990	1995
노인의 가족생활					
노인가구비율 ^{a)}	-	-	2.7	3.7	5.8
노인의 거주가구 분포 ^{a)}	-	-	23.2	30.0	42.3
노인의 의사결정에 참여	-	-	35.3	-	31.5
가족내 경제적 보조	-	-	-	-	27.0
역할 ^{1)b(c)} 손자녀 돌보기	-	-	-	-	40.9
가사일 보조	-	-	-	-	54.6
정서적 도움	-	-	-	-	25.2
집보기	-	-	-	-	33.6
청소년 및 취약가구 ^{a)}					
미성년 가구 비율	-	-	-	-	0.7
편부모 가구 비율	-	-	6.2	5.8	5.4
여성가구주 비율	12.8	14.7	15.7	15.7	16.8

註: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의 결과로 유배우부인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비율을 제시한 것임. 따라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지만, 노인들이 가족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를 살펴 볼 수 있음.

資料: a)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994.

c) _____,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1985.

한편 노인이 가족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은 31.5%에 불과하여 확대가족내에서도 노인들이 가족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사일, 손자녀 돌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관여되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편부모 가정의 비율은 약간 감소한 대신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소년·소녀가장의 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6개의 個別指標를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의 증대, 여성가구주의 증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미성년이 가족생활의 실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의 증가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家族問題로 파악된다.

〈表 6〉 少年·少女家長 實態

연도	가구수(가구)	가구원수(명)
1990	6,696	13,778
1991	6,902	13,985
1992	7,089	14,081
1993	7,322	14,293
1994	7,540	14,372
1995	8,107	15,118

資料: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5. 家族規範의 變化

家族規範에 관한 지표는 모두 主觀的 指標로 기존의 통계자료가 가장 부족한 영역이다. 個別指標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가용자료의 존재유무가 결정되고 있다. 즉, 가용자료의 존재유무가 바로 사회의 관심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그와 관련된 연구사업의 결과로 남아선호에 관한 시계열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 가사부담에 대한 태도 등의

전국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혼에 대한 태도가 조사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며 재혼에 대한 태도는 전혀 조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조사되었지만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인 남편의 가사부담에 대한 태도 및 분담현황 등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과 동일한 정의에 기초하여 조사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個別指標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 態度를 살펴 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家族規範의 實態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가족형성의 기초가 되는 婚姻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3정도만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약 절반 정도 되므로 많은 사람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選擇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離婚의 경우는 '자식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6.1%로 아직 이혼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가 확산되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다.

事由別 離婚에 대한 態度를 조사한 공보처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사유별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을 보면 배우자의 성격문제 다음으로 부부간의 문제(외도, 애정부족)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가족의 기초를 형성해온 家系の 重要性에 대한 態度를 보면 남아선호도는 많이 약화되었으며, 대잇기에 대한 신념도 많이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대잇기에 대한 태도는 아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아직도 일정 집단에서는 아들을 통한 대잇기에 대한 관념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表 7〉 家族規範의 變化

(단위: %)

「가족규범」영역의 개별지표	1975	1980	1985	1990	1995
혼인의 의미					
혼인에 대한 태도(혼인의 필요성) ^{c)}	-	-	-	36.7	-
이혼에 대한 태도 ^{1)b)}	-	-	-	-	46.1
가계의 중요성 ^{c)}					
남아선호도	61.0	46.8 ²⁾	38.7	40.5	26.3
대잇기에 대한 태도	-	-	-	-	37.1 ³⁾
가족생활 선호					
선호하는 가족형태 ^{4)c)}					
함께 살면서 부양받음	-	-	-	-	6.5
따로 살면서 부양받음	-	-	-	-	11.1
독립적인 생활	-	-	-	-	82.4
노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5)a)}					
자식이 부양	-	59.8	71.7	79.2	89.9
스스로 해결	-	36.6	20.5	15.8	9.3
사회 및 기타	-	3.6	7.8	5.0	0.8
여성의 역할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6)b)}					
가정에만 전념	-	-	27.8	21.1	15.8
결혼전까지만 취업	-	-	21.6	20.2	13.2
자녀성장후 취업	-	-	8.9	22.4	16.1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	-	18.2	22.5	34.1
가정과 관계없이	-	-	23.5	13.7	20.9
가사부담에 대한 태도 ^{b)}	-	-	-	-	69.1 ⁷⁾ 84.3 ⁸⁾

註: 1) 자식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임.
 2) 딸만 둘일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해 더 낳겠는가에 대한 응답임. 기타 연도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3)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4)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의향에 대한 응답임.
 5) 각각 1979, 1983, 1988, 1994년도 자료임.
 6) 각각 1984, 1991, 1995년도 자료임.
 7) 아내가 직장생활을 할 경우 남편은 가사나 가족원의 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응답률
 8) 동일질문에 대한 여자의 응답률
 資料: a)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각년도.
 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생활실태조사』, 1994.
 c) _____,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976, 1982, 1985, 1991, 1994.

〈表 8〉 事由別 離婚이 可能하다고 보는 比率(1996)

이혼사유	비율(%)
부부간의 애정부족	67.8
원만치 못한 성생활	45.3
아이를 가질 수 없음	28.7
상대방의 불이해	49.7
배우자의 외도	78.3
시·처가와 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27.8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35.3
배우자가 가정경제에 타격을 줌	45.2
가정일에 무신경함	58.7
장기간의 질병·투병생활	11.0
배우자의 폭력	81.0
성격과괴, 정신질환	82.8

資料: 공보처, 『한국인의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 1996.

核家族이 家族生活의 基本單位로 자리잡았음을 가족구성에 관한 지표의 검토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의 형성이 현실적인 제약에 의한 결과인지 規範的인 態도의 變化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핵가족에 대한 태도 또한 파악되어야 한다. 核家族에 대한 理想的인 態度는 가용통계의 제한으로 인하여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의향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파악하였다.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절대 다수가 독립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 가족생활단위로서의 핵가족에 대한 선호가 자리잡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증가되어서 실제 노후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는 세대간 차이가 매우 클 것임을 예측케 한다.

전통적인 핵가족의 이념중의 하나는 성에 기초한 분업체계이다. 즉, 전통적으로 핵가족은 남자가 가족의 일차적인 부양자이며 여성은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업체계에 기초해 있다(Parsons, 1955).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분업형태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도구적 역할 즉, 경제적 부양자의 역

할을 공유하게 되었다(Popenoe, 1990).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에서의 女性의 役割에 대한 差別的인 態度에도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기혼 女性의 외부취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 즉,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비율이 계속 감소하여 1995년 현재 15.8%만이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결혼전까지만 또는 자녀양육 전후에만 취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많다. 즉, 아직도 女性의 경제활동은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에 비하여 부차적으로 보는 태도가 많다.

한편 家事分擔에 대한 態度를 보면 부인이 취업했을 경우 남편이 가사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자의 경우 69%로 女性의 84.3%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女性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남성의 가사분담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家族規範에 관한 10개의 개별지표를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規範的 變化는 결혼에 대한 선택적 태도 및 가계의 중요성의 약화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女性의 취업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양육에 비하여 부차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 취업에 따르는 가사분담이 아직 기대보다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I. 政策課題

1. 家族變化에 對應하는 家族政策

社會指標의 검토를 통해 나타난 家族의 時系列的 變化에 기초하여 볼 때 韓國의 家族政策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구 및 가족규모의 축소, 핵가족화 등 가족구성의 변화는 여성취업의 증가와 맞물려 의존적 구성원 즉, 아동,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보호기능 약화를 보완해 줄 수 있는 社會福祉서비스가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가정을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용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용료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하 가정에겐 실비를 징수하며, 그 외 가정에는 이용료 전액을 징수토록 하는 차등요금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이혼의 증가 등에 따른 편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즉, 이들을 위한 정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자조능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專門인 家族福祉 相談서비스 體系가 構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후 많은 여성이 빈곤화를 경험한다(Weitzman, 1985)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이혼여성을 위한 취업교육기회의 확대 등 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김순옥, 1993; 변화순, 1996). 더불어 편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공세권·조애저, 1995; 김웅석·이상현, 1994).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족생활이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家計의 經濟的 福祉의 增進이 경제적인 자원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주거관련 비용과 교육비가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커 수입의 증가부분이 경제적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가격의 적정화와 민간임대주택제도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가계에서 주거관련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윤정혜, 1995). 이는 주거생활의 불안정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家族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될 수 있는 가계자원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공교육의 질의 향상을 통한 課外費 支出의 減少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교육비가 가구지출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사교육비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넷째, 가족단위의 교육과 여가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대간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이 여가를 함께 함으로써 家族連帶가 強化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변화되고 있는 가족기능과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족모델의 제시를 통한 家族倫理의 定立이 요구된다. 즉, 건강한 가족의 육성을 통하여 건강한 개인이 양성되고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에서는 최근 건강한 가족의 행동강령으로 따뜻한 가족, 열린가족, 통하는 가족, 올바른 가족, 더불어 사는 가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가정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개별가족이나 개인, 국가, 시민단체간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家族部門 社會指標의 改善方案

家族部門의 社會指標가 가족의 모습과 변화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個別指標의 修正 및 補完이 이루어지고, 둘째, 제시된 個別指標의 정의에 상응하는 全國的인 資料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형성 부문의 경우 조이혼율, 조재혼율과 더불어 혼인유형이 혼인과 가족해체를 살펴 볼 수 있는 個別指標로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질 것이며, 그 결과 의붓부모와 의붓자식간의 갈등과 적응의 문제가 많은 사회적 관심을 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재혼여성과 초혼남성과의 결혼은 지금까지의 결혼유형—즉, 여성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가족규범 관련지표로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녀양육에의 참여정도와 태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내의 성별 역할분업의 변화는

가사분담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족생활중 가구소득에 대한 개별지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서 단순한 소득액수만으로는 소득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GNP수준 또는 구매력을 고려한 지표로 그 구체적 정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家族單位の 文化生活을 살펴 볼 수 있는 資料源과 家族規範을 살펴 볼 수 있는 資料源이 부족하다. 따라서 시급히 이들 個別指標에 상응하는 자료가 생산되어야 앞으로 가족생활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의 방향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家族規範 또한 태도의 변화가 가족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용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차원에서의 家族關聯 調査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 급격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전국적인 가족관련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3; Chadwick and Heaton, 1992; Sweet, Bumpass and Call, 1988).

參 考 文 獻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7.
 _____, 『1980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2.
 _____, 『1985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7.
 공보처, 『한국인의 가치·의식에 관한 조사』, 1996.
 공세권·조애저, 『편부모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권태환·김태현·최진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1995.
 김순옥, 『이혼과 대책』,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1993, pp.171~185,

- 김응석·이상현, 『소년소녀가장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_____, 『다양한 가족유형과 건강가족의 과제』, 행복한 가정육성 세미나 발표자료, 1996.
- 장현섭·김현옥·배화옥, 『가족영역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조남훈·변용찬·최병호·정경희,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I,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2.
-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7.
-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1993.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조사보고서』, 1993.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 평가조사』, 1978.
- _____, 『1982년 전국가족보건 실태조사보고』, 1982.
- _____,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5.
- _____,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1992.
- _____,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992.
- _____,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994.
-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3年 第1回 全國家庭動向調査』, 東京, 1995.
- Chadwick, B. and Heaton, T., *Statistical Handbook on the American Family*, Phoenix, Oryx Press, 1992.
- Giddens, A., *Sociology*, London, Polity Press, 1993.
- Glick, P. C. and Parke, R. Jr., "New Approaches in Studying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Demography*, Vol.2, 1965, pp.187~202.

- Land, K. C., "Social Indicator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9, 1983, pp.1~26.
- Parsons, T., "The American Family: Its Relation to Personality and the Social Structure,"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T. Parsons and R. F. Bales(Eds.), N.Y., Free Press, 1955.
- Popenoe, D., "Family Decline in America", in *Rebuilding the Nest: A New Commitment to the American Family*, David Balnkerhorn, Steven Bayme and Jean Bethke Elshtain(Eds.), Milwaukee, 1990.
- Sweet, J. A., Bumpass, L. & Call, C., *The Design and Content of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88.
- Weitzman, L. J., *The Divorce Revolution: The Unexpected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Women and Children in American*,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 WHO, *Statistical Indices of Family Health*, Technical Report Series 587, Geneva, 1976.

Summary

Family Changes and Policy Issues in Korea

Kyunghee Chung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changes that Korean families have undergone and to consider the policies that are needed to adapt to such changes by examining 43 individual indicators of the family sphere suggested in Korea's Social Indicator Classification.

Major family changes in the last 20 years can be grouped into several points. First, in terms of family structure, the family size have been declini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and one generation families. Second, in terms of family formation, the timing of marriage and birth of first children are being delayed.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children has been decreasing and the crude divorce rat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Third, the economic status of families has improved although preparations for old age is still inadequate. In addition, families are enjoying more leisure time. Fourth, the increasing elderly-only households, female-headed households, teenage-headed households are prominent family problems. Finally, more people are permissive to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However, many people still consider working as the secondary role to child-rearing for women.

Based on theses changes, family policies should be oriented toward the following directions to meet these changes. First of all, because of the weakened capacity of the family to protect and care for individual members economically, physically and emotionally, the government must strengthen the social services available for families.

Moreover, the government must undertake a greater share of the responsibilities of protecting and caring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by extending child-care facilities and after-school programs for children, and strengthening social services, day care centers, and short-term care centers for the elderly. Secondly, family counselling services must be strengthened to help solve family problems and to counter the increase of broken families. Thirdly, policies that enable families to maintain their economic security are needed. The economic welfare of families can be enhanced by shrinking the cost of housing and education. Fourth, education programs and leisure activity programs must be developed to strengthen family relationships. Finally, models of 'healthy families' must be conveyed to help guide family standards in a desirable direction.